

너그러운 실천으로 마음이 빛나시길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전하게 되어 반가움이 가득합니다.

올해는 온순한 청양(靑羊)의 해입니다. 양은 이해심이 뛰어나고 화합을 잘하기 때문에 무리지어 살아도 다툼이 적다고 합니다. 강원도민 여러분의 삶이 청양처럼 늘 조화롭고 행복하길 축원합니다.

만물이 형형색색으로 봄소식을 전하는 것은 겨우내 생명을 놓지 않고 품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훈훈함을 잃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느새 겨울을 밀어내고 촉촉한 대지 위에서 희망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향기로운 봄소식과 함께 만사여의(萬事如意)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자연 만물이 소생(甦生)하듯이 사회가 생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더라도 주위와 함께 하려는 솔선수범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워야 새로 채울 수 있고 버려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을 비우면 한껏 자유로워지고, 내 것을 나누면 자신을 옥죄는 탐욕에서 벗어나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욕심을 버릴 때 이웃이 보이고, 내 것을 나눌 때 행복의 길이 열립니다.

이웃의 웃음에서 나의 행복이 보이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으로 정겨운 것은, 우리 모두가 본래 청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강원도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실천이 본래의 마음을 더욱 빛나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흔히 양을 순하고 연약한 동물이라 하지만 무리를 짓는 공동의 지혜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가정과 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양들처럼 화합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실천해 가기를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웃음이 사회 곳곳에 맑은 기운을 넘치게 하고, 온 나라, 온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3월 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합장